

동시통역을 위한 학습자 문장구역 전략 연구

허지운
(이화여대)

I. 서론

대표적인 통역 유형인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기술은 오랜 시간의 반복적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완성된다. 전문 국제회의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은 일반적으로 순차통역 교육을 먼저 진행한 후 학습자들의 순차통역 능력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동시통역 교육을 실시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통역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중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문장구역이다. 문장구역은 물론 독립적인 하나의 통역 유형으로도 가능하다. 연사가 사전에 원고를 준비한 경우 이를 통역사가 입수하여 연사의 발화에 맞춰 눈으로 읽으며 목표 언어로 발화하는 것이다. 문장구역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시통역 전략 설계 및 사전 연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곽중철, 2012; 방교영, 2003; 주진국, 2012; 홍설영 2012). 전향식 문장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통사

적 차이가 큰 언어쌍 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단위를 적절하게 통역하는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고, 반복적 연습을 통하여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다. 동시통역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통역하는 작업으로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수에 대한 판단을 순발력 있게 내려야 한다. 문장구역은 이 과정에서 언어와 의미 요소에 대한 고려에 중점을 둔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시통역을 위한 효과적 학습 및 훈련 수단으로서의 문장구역에 집중하여 학습자들이 고충을 경험하는 요소와 문제 해결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시통역을 1년간 학습한 학습자 집단과 아직 학습하기 이전인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향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문장구역은 문어 텍스트를 읽고 구어 텍스트로 재발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원천언어 발화를 청취하고 목표언어로 발화하여 재생하는 구술 통역과 달리 문장구역은 원천언어 입력 과정에서 문어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문장구역은 통역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통역 유형으로, 순차통역이나 동시통역과 마찬가지로 의미단위를 분석하는 개념화 및 발화의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이 두 과정이 동시성을 띄기도 한다(주진국, 2012, p. 213).

한편 문장구역은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 연습을 위한 사전 연습 또는 선수 과목 등으로 통번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곽중철, 2012; 방교영, 2003, p. 110; 주진국, 2012, p. 213; 홍설영 2012, p. 236). 적용 대상 학습자도 기초 수준에서 동시통역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장구역은 통역 기초 학습자에게 지식 영역의 확대, 언어 유형 및 고정 상용구 학습, 문장 끊기 능력 함양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楊承淑, 2007, p. 184). 고급학습자에 해당하는 통번역대학원생에게는 신속한 텍스트분석 능력, 문법 단위나 단어 단위 통역 함정을 극복하고 의미 단위 통역을 가능케 하는 문장 분절 기술을 배양하는 학습법으로 작용한다(곽중철, 2000, p. 67; 주진국, 2012, p. 216).

특히 문장구역은 전향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행위의 동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시통역과 유사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 동시통역 연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정혜연, 2007, p. 107). 또한 문장구역은 다양한 통역 전략을 구상하기에 적합하다는 면에서도 교육적 함의가 있다. 동시통역 학습에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 중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전략의 자동화를 구현하게 되며, 이는 통역 시 인지 부담 경감의 효과를 도출한다(Riccardi, 1998). 이처럼 동시통역의 전략 개발 차원에서 텍스트 심층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장구역이다(Lee, 2007, p. 159).

문장구역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동시통역 전략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분절(segmentation) 전략이다. 문장구역 분절 전략을 논할 때 분절(segment) 단위를 의미하는 ‘의미단위(meaning unit)’라는 용어가 핵심적으로 등장하는데, 의미단위는 표준적이거나 일률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는 통역사가 부담 없이 인지 및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방교영, 2003, p. 115). 의미단위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단어가 될 수도 있으며, 방교영(2003)은 적정 단위로 5-7개 단어를 제시하였고, Seleskovitch & Lederer(1989)는 최대 7-8 단어를 제안하였다. Jones(1998, pp. 81-82)는 의미단위란 문법 및 통사적 단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통역사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된다고 기술하였다.

분절 전략을 적절히 취함으로써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보다 짧고 처리하기 쉬운 단위로 분리할 수 있고, 연사의 발화 전체를 사전에 알지 못하더라도 중립적인 접근으로 분절을 처리하면서 전향적으로 의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Gile, 1995, p. 196; Jones, 1998, p. 88). 분절을 하는 것은 청취하는 원문 발화를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함인데, 원문 발화를 순차적으로 통역하는 전향적 발화 전략을 취하면 기억 및 정보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이주은, 2020; 정혜연, 2007; 주진국, 2012). 다만, 언어 쌍 간 통사구조 차이가 큰 경우 바꿔말하기(paraphrasing), 통사구조 변환 등 보다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전략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Hong(2010)은 영문에서 동사로 표현한 부분을 한국어에서는 명사화하는 등의 품사전환 및 바꿔말하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진국(2012)은 ‘은/는’을 활용하

여 ‘주제부화’를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제부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고자 하는 대상, 설명하고자 하고자 하는 주어에 ‘은/는’을 붙여서 주제부-설명부의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보량이 많을 경우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문장 구성 방식으로 문장구역 및 동시통역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주진국, 2012). 영어에서 한국어 방향으로 통역 시 유용한 방식이지만, 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통역하는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용성과 이주은(2016)은 구나 종속절을 주절로 변환하는 ‘초점전이’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방식은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의 무게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시간 제약 속에서 대략적인 의미 정확도를 유지한 채 신속한 통역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전략이다(이용성과 이주은, 2016). Jones(1998, p.88)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변환하거나, 문장 내에서 관계절 혹은 종속절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사적 전략 외에도 동사나 맥락 명사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다리기’ 전략, ‘예측’ 전략 등 동시통역의 다양한 일반 전략이 문장구역에도 적용 가능하다(Pöchhacker, 2004, pp. 133-134). 이상으로 문장구역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기존의 국내 문장구역 선행연구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 언어 쌍 간 실제 사례와 전략을 소개하는 등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만, 실제 영어와 한국어 언어쌍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은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통역방향 위주로 소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출발어로 하고 영어를 도착어로 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문장구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실제 텍스트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를 더욱 발전, 확대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동시통역 대비 학습자 문장구역 전략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한 대학원의 통역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문장구역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시통역을 이미 배운 학습자와 배우지 않은 학습자 간 전략 차이를 보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는 순차통역만 학습한 1학년 10명,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을 모두 수강한 2학년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은 2020년 1월 18-29일 사이에 진행되었으

며, 각 실험 세션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실험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단계는 본 실험 단계로 문장구역을 실시하였다. 둘째 단계는 실험 사후조사 단계로 실험에서 사용한 한국어 문장구역 텍스트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각자 자신이 영어로 문장구역하며 고충을 경험한 부분을 표시하고 이유를 적도록 하였다. 본 실험 단계에서 제시한 문장구역 문장은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대신, 문장을 동시통역 시 분절하듯 구나 절 단위로 분절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이는 동시통역 입문 단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수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교수자가 사전에 문장을 끊어서 나눈 후 각 분절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학생들은 제시된 분절을 눈으로 보면서 통역하는 방식이다(Setton & Dawrant, 2016, p. 270). 2장에서 논하였듯, 의미 단위는 통역사 재량에 따라 기억과 인지 부하 처리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구분되며, 통사적으로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구와 절 등이 의미단위 구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절을 하였다(방교영, 2003, p. 115). 이는 동시통역 시 순서대로 연사의 발화가 입력되고, 통역사가 적절한 시점에서 분절하여 통역하는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교실 정면 스크린의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띄워지는 분절들을 보며 통역하였고,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급하게 통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분절이 제시될 때마다 반드시 모두 통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전략에 따라 다음 분절에서 통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주어진 분절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통역하지 않고 다음 분절을 기다려도 된다는 점도 안내하였다. 이는 동시통역에서 기다리기 혹은 간직하기(retain) 전략을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장구역을 위하여 제시한 문장들은 다양한 문형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수월하게 처리 가능한 단문보다는 복문과 다양한 구와 절로 구성되어 동시통역 시 어려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어 학습자 전략 파악에 적합한 문장들로 구성하였다. 총 3개의 텍스트에서 문장을 추출하였고, 텍스트별로는 문장 간 맥락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였다. 텍스트 정보는 아래와 <표 1>과 같다. 구체적인 문장 분석은 IV장 1절의 ‘결과 요약’의 <표 2>에 기술하였다.

〈표1〉 텍스트 정보

텍스트 번호	주제	텍스트 유형	문장번호 (〈표 2〉 참고)
1	생태계 경쟁력 (권영설, 2020년 1월 17일)	기사문	1-8번
2	APEC 정상회의(공감, 2019)	연설문	9-13번
3	반도체 시장 ¹⁾	연설문	14-17번

IV. 분석결과

1. 결과 요약

IV장에서는 문장구역 실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문장구역 접근방식과 전략은 각자 고유의 표현과 문장으로 구현되었기에 일률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접근방식 유형을 분류하여 정성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아래 <표 2>에서는 접근법상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준 문장 변환 접근법 빈도와 참가자들이 실험을 마친 이후 텍스트에 사후적으로 표시한 고충 요소별 빈도를 간략히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동시통역 훈련이 되어 있는 2학년과 그렇지 않은 1학년 간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도착어 텍스트에서 원문의 통사구조와 무관하게 문장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이다. 전체 ST 분절 39개 중 20개의 분절에서 2학년 학습자들은 1학년 학습자에 비하여 TT에서는 문장으로의 변환을 시도한 경우가 더 많았다. 고충 요소의 경우, 1, 2학년 학습자 공히 동사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9-1번, 예측에서 벗어난 전개가 되었던 15번에서 고충을 경험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및 호응관계 표현 간 거리가 멀어서 상호 관계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에 특정한 전략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장에서는 고충을 경험한 참가자가 2학년에 비하여 1학년이 더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었다(14-2, 14-5, 15-3). 2학년

1) 각종 연설문 문장구조를 응용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 또는 호응관계 간 거리가 멀고, 내포문이 포함된 복합문 위주로 구성하였다.

은 명시적인 주어를 유추하기 어려워서 문장 구성이 어려운 경우(8-1) 및 동사 예측이 어려운 경우(9-1)에 1학년에 비하여 고충을 경험한 참가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V장 2절에서 실제 표현을 분석하며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2〉 분절별 문장으로의 변환 및 고충요소 빈도

번호	텍스트	주요 통사적 구성	문장변환		고충요소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총계
1-1	'산업 생태계 경쟁력'은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며	주어, 부사절	9	9	1	2	3
1-2	주목받은 개념이다	술부 (관계관형절 내포)	4	9	3	2	5
2-1	종업원, 주주는 물론 고객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관형사절	8	4	2	1	3
2-2	'이해당사자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다.	목적어, 서술어	5	3	1	0	1
3-1	아이폰이 여전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부 (명사절 내포)	7	8	1	1	2
3-2	그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술부 (관계관형절 내포 주어, 서술어)	3	6	0	0	0
4-1	아이폰 출시 이후 10여 년이 넘는 지금	동격절	5	9	0	0	0
4-2	새로운 생태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주어, 서술어	10	10	0	0	0
5-1	증권사는 새벽에 고객이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주어, 부사절	0	0	0	0	0

5-2	세계 증시 리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목적어, 서술어	1	6	0	0	0
6	그동안 애널리스트가 이 작업을 해왔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10	10	0	0	0
7-1	이제 이 리포트를 쓰는 주인공은	관계 관형절	1	5	0	0	0
7-2	바로 인공지능이다	보어	0	2	0	0	0
8-1	주식매매 알고리즘을 학습하였다면	조건문 부사절 (목적어, 서술어, 주어생략)	0	0	1	5	6
8-2	그런 AI는 전세계 어디에서건	주어, 부사구	2	1	3	0	3
8-3	전문 주식투자자가 될 수 있다.	보어	2	8	0	0	0
9-1	우리는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에	주어, 부사어	0	0	1	6	7
9-2	합의했습니다.	서술어	5	9	8	7	15
10-1	이제는 로드맵 이행을 위해 지혜를	부사구, 목적어	2	4	0	0	0
10-2	모아야 할 때입니다.	관계관형절, 보어	3	7	2	0	2
11-1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이행 메커니즘을	주어, 목적어 (명사절)	3	2	1	2	3
11-2	지지합니다.	서술어	2	3	3	4	7
12-1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위해	부사구	0	0	0	1	1
12-2	디지털 기금 창설을	목적어 (명사구)	2	4	2	1	3
12-3	제안합니다.	서술어	3	5	7	4	11
13-1	한국은 기금 창설과 운영에	주어, 부사구	0	0	2	1	3

13-2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목적어(동격관형절), 서술어	3	5	1	0	1
14-1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부사구	4	4	4	3	7
14-2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신 것을 보면	목적어(동격관형절 내포명사절), 서술어	1	8	8	4	12
14-3	작년 한 해 수요 하락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반도체 시장이	관계관형절	4	1	6	5	11
14-4	금년에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명사절	3	0	6	6	12
14-5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 서술어	7	7	9	3	12
15-1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부사구	0	0	1	1	2
15-2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주어, 부사구	5	7	7	8	15
15-3	강연을 해주셨던 김반도 교수님을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관계관형절, 서술어	6	9	6	3	9
16-1	연초부터 반도체 시장 부활에 대해	부사구	1	3	3	4	7
16-2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습니다.	관계관형절, 보어	7	10	3	3	6
17-1	또 올해 AI에 대한 수요가 기대한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명사절, 술어	1	4	1	0	1
17-2	논란이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6	7	1	2	3

2. 문장구역 전략 유형

2.1 서술어 포함 분절의 문장구역 전략

원문 분절 내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참가자들은 해당 분절을 문장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이는 1학년 학습자보다 2학년 학습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이는 1년간 동시통역 연습을 통하여 분절화 전략을 익힌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당 분절을 처리하여 인지 부담을 경감한 후 다음 분절로 넘어가고자 하는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1학년 학습자들은 원문의 문장 구조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났다.)

2.1.1. 1-1, 1-2 분절

아래 1번 문장의 경우 1-1 분절은 전체 문장의 대주어인 ‘산업 생태계 경쟁력’ 다음에 주어(‘애플’)와 서술어(‘내놓으며’)가 모두 포함된 절이 내포문으로 이어지고 다음 1-2 분절에서 술부가 제시된다. 1-1 분절의 경우 1, 2학년 참가자 대부분이 문장으로 변환하였다. 대주어인 ‘산업 생태계 경쟁력’의 함의를 파악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등장하다(emerged)’, ‘도입(introduced)’, ‘시작(started)’ 등의 동사를 예측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절을 완성하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았다’는 내용도 별도의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는 절로 변환하여 문장 처리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후 1-2 분절의 경우, 원문에서는 술부 동사만 있고 주어는 없지만, 맥락 속 함축된 주어인 ‘개념(concept)’을 주어로 새로이 생성하여 문장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ST: (1-1) 산업 생태계 경쟁력은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며/
(1-2) 주목받은 개념이다.

TT 1-3: (1-1) Industrial ecosystem competitiveness was started after
Apple released its iPhone in 2007./(1-2) This is a concept that received

2) 분절과 참가자 번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분절의 경우 ‘문장번호-분절번호’로 분절을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TT는 ‘TT 학년-번호’로, 참가자는 ‘참가자 학년-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much attention since then.

TT 2-9: (1-1) The industrial ecosystem competitiveness is what is introduced by Apple when it was introducing iPhone in 2007./ (1-2) And at the time the concept garnered much attention.

한편, 아래의 1학년 학습자의 경우는 원문의 문장구조를 최대한 유지하여 1-1 분절을 문장이나 절로 표현하는 대신 부사절을 내포한 주어부로 처리하였다.

TT 1-4: (1-1) As Apple rolled out iPhone in 2007,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1-2) a concept that garnered much attention.

2.1.2. 4-1, 4-2 분절

다음의 문장들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학습자 집단 간 접근법 차이가 두드러졌다. ST 4-1 분절은 동격절이지만 시간 부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1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이를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부사로 처리하여 원문의 통사적 구조를 유지한 반면, 2학년 학습자 대부분은 ST 문장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형하여 TT에서는 완결된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ST: (4-1) 아이폰 출시 이후 10여 년이 넘는 지금/ (4-2) 새로운 생태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TT 1-1: (4-1) 10 years after iPhone was first launched/ (4-2) a new ecosystem is emerging as of now.

TT 2-1: (4-1)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lease of iPhone./ (4-2) And now the new ecosystem seems to be created.

2.1.3. 7-1, 7-2 분절

다음의 문장도 1학년 학습자 대비 2학년 학습자들이 문장 변환 전략을 더 많이 취한 경우이다. ST 7-1 분절은 관계관형절을 내포한 명사절 주어로 이루어져 있고 7-2 분절에서 보어로 구성된 서술어가 이어진다. 1학년 학습자는 ST의 ‘주인공은’에 대응하는 who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인 ‘the one’을 주어

로 사용하고 be 동사까지 표현하며 해당 분절을 마무리하여 ST의 문장 구조를 최대한 살린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2학년 학습자는 문장구조 바뀌는 것을 통해 완결된 문장으로 해당 분절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ST: (7-1) 이제 이 리포트를 쓰는 주인공은/ (7-2) 바로 인공지능이다.

TT 1-6: (7-1) Now the one who writes these stock reports will be/ (7-2) the AI.

TT 2-4: (7-1) Now a new hand writes this report/ (7-2) the hands of AI.

TT 2-9: (7-1) Now there is a new protagonist who is writing this report./ (7-2) And that is none other than AI.

2.2 서술어 미포함 분절의 문장구역 전략

서술어가 분절 내에 포함되어 통역 시 문장으로 변환이 용이한 경우와 달리, ST 분절 내에 서술어가 포함되지 않은 분절을 영어로 통역 시 문장 구성에 고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동사를 미리 예측하거나, 명사구 또는 부사구로 처리하거나, 해당 분절 내 상당 부분을 통역하지 않고 간직(retain)하고 기다렸다가 다음 분절에서 동사를 확인한 후 한꺼번에 통역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관찰되었다.

2.2.1. 9-1, 9-2 분절

아래 9번 문장에서 9-1 분절은 서술어인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어 ‘우리는’에 이어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이 나오며, 이에는 ‘-에’라는 조사가 붙어 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³⁾에서 정의하는 ‘에’ 조사의 용례를 참고하면, 이후 9-2 분절에 나올 서술부에 따라 ‘-에’는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되어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목표나 목적의 대상,” “수단, 방법,” “기준 되는 대상이나 단위,” 또는 “처소”가 될 수도 있어

3) Retrieved Aug 20, 2020 from 네이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864263b0f824097b6a7f75670060f35>

통역 시 문장전개 예측에 고충을 발생시킨다. 실험을 마친 후 사후 조사에서도 참가자들 대부분이 서술어 예측 불가능으로 인하여 9번 문장에서 고충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아래 TT 2-10, TT 2-9, TT 1-2는 예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립 전략으로 ‘~하면’, ‘~에서’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구로 통역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지만, 9-2 분절의 서술부 ST가 ‘합의했습니다’라는 동사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9-2 분절에서 이 동사만 영어로 발화하는 것으로는 ST 9-1 분절에서 이미 발화한 영어 부사구와 호응을 이루지 못하고 의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TT 2-10은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을 ‘agreed on’의 목적으로 재차 발화를 하여 시정을 하였다. TT 2-9도 9-1 분절 내용을 재 발화하는 전략을 취하였는데, 9-1에서 ‘in the ... roadmap’으로 발화하였기 때문에 이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9-2에서는 ‘in these areas’로 ‘in the ... roadmap’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로드맵이 어떠한 ‘분야’인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의미정확도상 유효하지 않았다. TT 1-2도 9-1 분절을 ‘in the ... roadmap’이라는 부사구로 처리하여 예측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9-2 분절에서는 목적어 없이 ‘we have reached a roadmap(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통역을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9번 문장이 ‘... 로드맵에서 우리는 합의했다’라는 의미로 통역되어 결국 합의한 대상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은 채 의미가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ST: (9-1) 우리는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에/ (9-2) 합의했습니다.

TT 2-10: (9-1) When we look at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9-2) we agreed on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TT 2-9: (9-1) In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9-2) in these areas we have agreed.

TT 1-2: (9-1) In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9-2)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1학년 학습자 중에는 아래와 같이 ST의 문장구조와 문장성분을 그대로 따르는 접근을 취한 경우가 있었다. 주어의 위치와 문장구조도 동일하게 유지하

고,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을 부사구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9-2 분절의 서술어인 ‘합의했습니다’를 매끄럽게 처리하기에는 이미 진행된 문장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가자는 9번 문장 전체를 다시 반복하며 마무리하였다.

ST: (9-1) 우리는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에/ (9-2) 합의했습니다.

TT 1-4: (9-1) We, in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9-2) we agreed on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한편, 9-1 분절에서 과도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상에 해당하는 ‘APEC 인터넷, 디지털 로드맵’을 주어로 처리하고 주어인 ‘우리는’을 생략한 TT 1-3의 전략, 또는 이를 ‘~에 관하여’에 해당하는 전치사 ‘regarding’을 사용하여 부사구를 이용하여 주제부(theme)로 처리하고 이후 등장하는 서술어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여지를 준 TT 1-9의 전략은 서술어 예측이 어려운 분절에서 효과적인 문장 전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TT 1-3: (9-1)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9-2) has been agreed.

TT 1-9: (9-1) Regarding APEC Internet and digital roadmap/ (9-2) we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2.2.2. 10-1, 10-2 분절

10번 문장의 경우, 10-1 분절에서 서술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적으로 등장한 ‘지혜를’은 함께 사용되는 관습적인 동사(‘모으다’)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참가자가 어렵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ST: (10-1) 이제는 로드맵 이행을 위해 지혜를/ (10-2) 모아야 할 때입니다.

TT 1-3: (10-1) In order to follow the roadmap/ (10-2) we need to muster up our wisdom.

TT 1-6: (10-1) Now it is about time to bring roadmap in action and

bring together wisdom./ (10-2) (null) /

TT 2-5: (10-1) It's time that we implement that agreement and gather wisdom/ (10-2) all together.

2.2.3. 11-1, 11-2 분절

11번 문장의 경우 11-1 분절에서 대주어인 ‘한국은’의 서술어가 부재한 가운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 내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11-1 분절의 문장구조를 대체로 따르거나, 주어만 발화하고 나머지는 간직한 채 기다리거나, 해당 분절을 문장으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취하였다.

우선 아래 TT들은 동사에측을 하지 않고 명사구를 활용하여 11-1을 표현함으로써 ST의 문장구조를 따른 경우이다. TT 1-4는 주어는 생략하였지만 11-1 분절의 내포문을 명사구로 통역하여 주제부(theme)로 처리한 후 11-2 분절에서는 이를 ‘this’라는 목적어로 다시 받아서 주제부화된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TT 2-4에서 보듯, 2학년 학습자들은 문장 구성의 유연성을 더 발휘하여 11-1 분절에서 대주어는 통역하지 않고 보류한 채 내포문을 명사구로 처리한 후 11-2 분절은 11-1 분절의 대주어를 포함한 수동태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TT에서도 제시작이나 주제부화 없는 온전한 문장으로 11번 문장을 처리가 가능하였다. 다만 사후 피드백에도 언급되지만 참가자들은 수동태 처리를 선호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전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ST: (11-1)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메카니즘을/ (11-2) 지지합니다.

TT 1-4: (11-1) The enforcement mechanism proposed by the chair country,/ (11-2) this we strongly support.

TT 2-4: (11-1) The execution mechanism suggested by the chair country/ (11-2) is fully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한편, 아래의 경우에는 대주어만을 언급하고 명사절은 통역하지 않고 다음 분절에서 처리하기 위해 간직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TT 1-7: (11-1) South Korea/ (11-2) endorse proceeding the mechanisms suggested by the presidency country.

9번 문장에서 서술어가 부재한 경우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략으로 ‘in regards to’를 명사구와 결합하여 주제부화를 함으로써 서술어 부재를 보완하는 아래의 전략은 의미 전개에 있어 안전하게 문장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하였다.

TT 1-3: (11-1) Korea, in regards to the mechanism proposed by the chair country,/ (11-2) is highly supportive of this idea.

한편 분절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전략이 11번 문장에서도 관찰되었는데, TT 2-10은 ST 11-1 분절의 명사절을 문장으로 변환하고 대주어는 간직해두었다가, 11-2 분절에서 대주어를 언급하고 해당 명사절을 다시 ‘this mechanism’으로 받으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 반면, TT 1-6은 ‘지지하다’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pursue’라는 동사를 무리하게 예측하여 의미가 부정확하게 표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TT 2-10: (11-1)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was proposed by the chair country./ (11-2) And South Korea supports this mechanism.

TT 1-6: (11-1) South Korea will pursue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as proposed by the presidency./ (11-2) And endorse such mechanism.

2.3 수식어-피수식어 및 호응관계 거리에 따른 문장구역 전략

문장이 다수의 내포문을 포함하고 수식어-피수식어 및 호응관계 표현 간 거리가 먼 경우 보다 복잡한 전략이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도 참가자들이 14번과 15번 문장에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2.3.1. 14-1, 14-2, 14-3, 14-4, 14-5 분절

14번 문장은 다섯 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다. 14-1과 14-2 분절은 ‘~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다’라는 예측가능한 문구가 연상되는 전개가 이어진다. 그러나 14-2 말미에 ‘~을 보면’이 14-3 분절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4-5 분절과 연결되어 ‘~을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의 호응 관계가 성립된다. 즉,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을 보니 올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의미로 통역이 되어야 한다. 이를 14-2 분절에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14-2 분절에서 ‘~을 보면’을 곧바로 통역해 버리면 이후 14-3, 14-4 분절 처리에 고충이 발생하게 된다.

ST: (14-1)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14-2)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신 것을 보면/ (14-3) 작년 한 해 수요 하락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반도체 시장이/ (14-4) 금년에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14-5)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두 TT에서는 ‘~을 보면’을 14-2 분절에서 성급히 처리하다가 의미 오류가 발생하였다. 1학년 학습자인 TT 1-6은 ‘~을 보면’을 ‘looking at ~’으로 처리하면서 14-3 및 14-4 분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바람에 ‘금번 행사에 참석자가 많은 것을 보니 지난 해 반도체 시장 부진이 올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화자가 확신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통역되어 의미 오류가 발생하였다. 14-5 분절에서 의미를 다시 보완을 하였지만, 14-3, 14-4 분절에서 ‘지난해 상황이 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정적인 내용으로 통역하였고 이를 14-5 분절에서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였다.

TT 1-6: (14-1)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ll the way despite this hectic scorching weather today./ (14-2) But looking at how full the house is today./ (14-3) it is my belief that the semiconductor market which has been going through recession due to a drop in demand in the past year/ (14-4) will take a different stance this year and have repercussions to our economy./ (14-5) And this is why a lot of people

are attuned to this matter.

2학년 학습자는 최대한 문장변환으로 분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하였는데, ‘~을 보면’ 대응 표현을 ‘And this means’를 사용하고 이를 14-3 분절 문두에 위치시키면서 14-3, 14-4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TT 2-1: (14-1) We're living in a scorching weather./ (14-2) However many people participated./ (14-3) And this means that the semiconductor market which experienced the recession due to the decreased demand last year/ (14-4) might have an impact on our economy this year./ (14-5) And I believe that many people are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this.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된 경우는 ‘~을 보면’ 부분을 14-2 분절에서 처리하지 않고 생략하거나(TT 2-9, TT 2-10), 이를 간직했다가 14-5 분절에서 처리한 경우이다(TT 2-2).

TT 2-2: (14-1) Despite the scorching weather,/ (14-2) many people have visited and participated./ (14-3) And the stagnant semiconductor market which had a decrease in demand last year/ (14-4) will have a new impact on our economy this year./ (14-5) And the fact that a lot of people are attending today means that the semiconductor market is garnering a lot of attention.

TT 2-10: (14-1) Despite the scorching heat,/ (14-2) we are seeing such a great turnout today./ (14-3) Last year due to the decrease in demand, the semiconductor market has been stagnating./ (14-4) And what impact it would have on our economy this year/ (14-5) is the focal point and is driving a lot of attention.

TT 2-9: (14-1) The temperature is extremely hot./ (14-2) Even though this is the case, many people have participated here today./ (14-3) The semiconductor market that was sluggish due to the downturn in demand last year/ (14-4) will have new impact on our economy this year./ (14-5) And what these new impact will be is garnering a lot of attention.

2.3.2. 15-1, 15-2, 15-3 분절

15번 문장도 수식어와 피수식어간의 거리가 먼 것이 특징이다. 15-1 분절 문두의 부사구인 ‘이러한 배경 하에서’는 앞 문장에서 전개된 맥락에 따라 ‘이러한 배경 하에서’는 금번 행사 연설 시점의 배경을 가리킨다. 따라서 15-1의 ‘이러한 배경 하에서’는 15-3 분절의 ‘~를 초청하였습니다’와 호응된다. 또한 15-2에서 언급되는 시점인 2017년은 15-3 분절의 김반도 교수가 강연을 했던 시점의 시장상황에 대한 기간을 가리킨다. 금번 연설 시점이 2020년이기 때문에 15-1 분절의 ‘이러한 배경 하에서’가 15-2 분절의 2017년과 연결되도록 통역한다면 의미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15-1 분절 처리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 (15-1) 이러한 배경 하에서/ (15-2)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15-3) 강연을 해주셨던 김반도 교수님을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15-1 분절을 ST 문장구조 그대로 부사구로 처리하면서 15-2 분절의 2017년을 금번 행사에서 중점을 둘 시점으로 오역이 발생한 경우이다. TT 1-10은 15-2 분절을 동명사구로 처리하며 문장 전개의 여지를 여러 갈래로 남겨뒀지만 2017년을 언급함으로써 의미 오류가 발생하였다. TT 2-7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2017년 반도체 산업 전망에 초점을 두겠다는 확정적 내용으로 통역하여 의미 오류가 명시적으로 발생하였다.

TT 1-10: (15-1) Under this circumstance/ (15-2) focusing on the prospect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2017/ (15-3) the research center invited professor Kim Bando who delivered lecture on the issue.
TT 2-7: (15-1) Against this backdrop,/ (15-2) we will focus on the prospec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of 2017./ (15-3) We have invited professor Kim Bando who lectured on the prospect of the 2017 semiconductor industry once again.

한편 TT 1-3은 문장 전개 방향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15-2 분절에서 ‘regarding’ 구문을 활용하여 주제부화를 함으로써 우선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다만 15-2 분절 내에서 2017년을 통역하여 금번 연설 주제가 올해 관심사가 아닌 2017년 상황인 것으로 통역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TT 1-3: (15-1) Against this backdrop,/ (15-2) our institution, regarding the 2017 forecast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15-3) invited professor Kim Bando, again, who gave a lecture on that topic.

아래의 경우 15-2 분절의 내용 중 주어만 통역하고 나머지는 간직하거나 주어를 포함한 전체를 간직하고 기다렸다가 15-3 분절에서 이를 통역하는 전략으로 의미 정확도를 기하였다. 다만 이 전략에서는 15-3 분절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시통역 시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

TT 1-8: (15-1) Against this backdrop/ (15-2) our institute / (15-3) has invited professor Kim Bando, who lectured last year. The lecture was about the 2017 semiconductor industry prospect.

TT 2-8: (15-1) In this context/ (15-2) (null) / (15-3) our institute invited professor Kim Bando once again who gave a prospect about the 2017 semiconductor industry last year.

간직하고 기다리는 전략 중 아래 TT 1-7의 경우 15-2 분절의 내용 대부분을 통역하였지만 시점에 해당하는 2017년은 생략해 두었다가 맥락 파악이 되는 시점인 15-3 분절에서 추가하는 전략을 취하여 15-3 분절에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통역하느라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전략을 취하였다.

TT 1-7: (15-1) Against this backdrop/ (15-2) our research institute focused on the prospec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15-3) Our research institute reinvited professor Kim Bando who delivered a talk in

2.4 소결

이상을 통하여 다양한 한국어 문장에 대한 학습자들의 문장구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분절의 경우 2학년 학습자들은 분절마다 문장으로 변환하여 의미를 완결함으로써 메모리 부담을 줄인 후 다음으로 제시되는 분절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관찰된 반면, 1학년 학습자들은 원문 문장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사적 구성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술어가 미포함된 분절의 경우 적극적 동사 예측을 통하여 해당 분절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전략이 관찰되었으나, 맥락상 후속 분절에서 제시될 수 있는 동사 선택지가 다양한 경우 잘못된 예측으로 인하여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다. 이에 서술어가 미포함된 분절에서는 ‘regarding(~에 관하여)’를 이용하여 주제부화를 하는 전략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해당 분절은 명사구 주어로 처리하고 이어지는 서술어 분절을 대주어를 포함한 수동태로 처리하는 전략을 사용한 경우, 의미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 또는 호응관계 표현 간 거리가 긴 복합문장에서는 분절 내 의미요소들을 해당 분절 내에서 모두 통역하는 것이 오히려 오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의미와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여 후속 분절에서 호응 관계가 마무리되거나 시점이 모호하여 맥락 고려가 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절에서 통역하지 않고 간직하거나 부사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단순한 문장구조에서는 문장변환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복잡한 문장에서는 시간부사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호응 관계에 있는 표현들 간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하는 것이 의미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3. 학습자 피드백

본 절에서는 문장구역 실험 후 학습자들이 사후 회상을 통하여 밝힌 고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해 보면 예측(예측대비 전략, 문장 분절, 동사 활용, 예측 오류 사후 전략 등), 문장구조 분석, 자연스러운

목표언어로의 통역, 간결성 유지 면에서 고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예측

참가자들은 1, 2학년 공히 예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청자의 이해도와 의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략 개선 방향을 밝혔다. 과도한 예측을 피하고, 중립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여 문장 전개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주어를 간직했다가 나중에 추가하는 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예측을 잘 해서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말해야지, 예측이 빗나가서 완전히 다른 말을 뱉으면 수습하기가 어렵고, 백트래킹이 심할 경우 청중도 신뢰가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참가자 1-1)

지나치게 예측을 많이 하고 미리 통역으로 말을 뱉어버리면 연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전달되어 수습하느라 바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주어진 내용에 한하여 통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참가자 1-9)

문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예측이 빗나갔을 때) 최대한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선회하기. 예측이 쉽지 않더라도 flow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문장을 일단 내뱉기 + 빠진 의미 retain 해두었다가 뒷문장에 적절히 조합해 말하기. (참가자 2-5)

예측이 쉽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문장을 적절히 끊는다거나 중립적 동사를 잘 활용하여 언제든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가자 2-6)

실험에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몰라서 주어를 먼저 뱉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참가자 1-10)

3.2. 구조 분석

학습자들은 복잡한 문장일수록 구조분석을 제대로 하여 통역사가 적극적

으로 문장을 분절하고 정리하고 연결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목표언어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분절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은 지양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시간부사가 걸리는 부분을 파악하여 정확히 전달해야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과 어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문장구조가 복잡하거나 길 때 통역사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구조파악, 예측을 하여 청자가 듣기 편한 통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감을 잘 살릴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숙지하고 대응어를 체화하는 것이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텍스트를 많이 읽어서 문장구조 파악이나 예측능력을 길러야 할 듯 싶습니다. (참가자 1-4)

한글 문장이 복잡하고 복문이 많으면 가능한 한 짧게 문장을 끊어서 통역하고 사이사이 논리적 링크를 넣어주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참가자 1-9)

한국어와 영어 어순이 다르다보니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끊어서 통역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게 쪼개거나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느라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참가자 1-10)

주어 홀드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가자 2-6)

앞에서부터 문장을 세그멘테이션하여 통역하기보다는 최대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 후 통역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통역이 될 것 같습니다. 긴 문장일수록 통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지 말고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을 잘 해야 합니다. (참가자 2-9)

시간부사가 어디에 걸리는지 유의해야할 것. 연결사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기 (참가자 2-10)

3.3. 자연스러운 표현

참가자들은 분절 순서대로 문장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스킬도 중시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도착어 문장을 구성하여 청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TT에서 불가피하게 수동태로 표현을 하게 된 부분도 참가자들은 청자 이해 면에서 아쉬운 면으로 생각하였고, 수동태를 피할 수 있는 문장구성 전략을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국어에서 영어를 순서대로 가져가면 피동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데, 한 번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수월한 문장구성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능동태로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게 듣는 사람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측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능동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영어 표현, 자연스러운 문장구성을 위해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직전에 시작한 문장의 주어를 가지고 가는 게 어려워져 그냥 바로 뱉는 게 정확도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1-7)

너무 많이 수동태형으로 구성하는 것 지양하기 (참가자 2-10)

원문에 너무 붙어 가면 청중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참가자 1-8)

기억할 수 있으면 뒤에까지 듣고 기억해서 통역하는 게 청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참가자 1-9)

너무 choppy하게 나와서 청자가 이해하는 걸 어렵게 만들지 않게 주의해야할 것 같다. (참가자 2-3)

영어문장이 최종적으로 완결할 수 있도록 의미 단위나 구/주어 등을 리

태인. 동사가 너무 구 단위로 똑똑 끊기지 않고 자연스러운지 고려. (참가자 2-8)

3.4. 간결성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간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실제 동시통역을 하게 된다면 시간 부족이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지나치게 장황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어를 2초 말하는 동안, 같은 내용을 영어로는 5초 말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통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2-2)

이상으로 참가자들이 밝힌 문장구역 수행 중 고충점과 향후 전략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이제 5장을 통하여 4장의 결과 분석에 대한 결론을 종합하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동시통역 수행을 대비한 전략 설계를 위한 연습 도구로서의 문장구역을 다루었다. 통번역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학습자 중 동시통역을 1년간 학습한 2학년 재학생과 아직 동시통역을 학습하지 않은 1학년 학생 각 10명을 대상으로 문장구역 실험을 수행하여 학습자들의 동시통역 대비 차원의 문장구역 전략을 분석하였고, 동시통역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간 비교분석도 진행하였다. 전향식 문장구역 수행상의 고충 및 문제해결 전략을 관찰하기 위하여 ST 문장과 분절 제시 방식을 다양하게 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 문제 해결전략을 관찰하기 위하여 제시된 분절 이후에서 동사가 등장하거나,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 거리가 먼 문장들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접근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학년 학습자에 비하여 동시통역을 1년간 학습하여 전략 설계

를 꾸준히 해온 2학년 학습자들은 매 분절마다 ST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구조 변형을 하여 TT를 문장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다음 분절까지 인지 및 메모리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학년 학습자들은 문장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기 보다는 원문의 문장구조를 보존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분석 및 바꿔말하기(paraphrasing)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T의 분절을 서술어 포함, 서술어 미포함, 수식어-피수식어/호응관계 간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분절 내 서술어가 포함된 경우 2학년 학습자들은 대부분 통역 시 문장으로 변환하여 해당 분절을 완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1학년 학습자들은 ST 문장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서술어 미포함인 경우 1, 2학년 학습자 공히 후속 분절에서 나올 서술어를 예측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동사 예측으로 오역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모호한 부사구로 처리하려다가 후속 분절에서 전체 문장을 다시 수정하여 재발화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서술어가 부재한 분절을 명사구 주어로 처리하고 나서 후속절의 서술어와 대주어를 수동태로 처리하거나, 해당 분절을 주제부화(theme)하여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의미 정확도 제고상 유효하였다.

한편, 내포문이 복잡하게 포함되고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 거리가 먼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는 호응 관계에 있는 표현들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참가자들이 TT에서 수식을 잘못하여 오역이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분절 내에서 완결을 짓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수록 복잡한 문장에서는 오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분절 내의 모든 의미를 통역하기 보다는 주어, 부사, 연도 등을 맥락에 따라 잠시 통역을 보류해두었다가 후속 분절에서 의미가 명시화될 때 통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문장 분석 및 개입 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도 사후 피드백을 통해 예측의 고충, 문장구조 분석의 중요성, 자연스러운 도착어 문장 구성의 중요성, 간결성 면에서의 고충을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하였다.

문장구역은 성공적인 동시통역을 위한 분절 세분화 전략 구상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법이다. 본고의 실험을 통하여 문장 및 텍스트 맥락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통사적 구조를 지닌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략을 고안해낼 기회가 창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역사의 인지 및 메모리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관습을 따르면서도 ST 의미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장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제 문장구역 실험 및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실험 참가자 인원 규모상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전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자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전문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전략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교육적 함의를 더욱 배가시키는 연구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공감. (201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Retrieved Jan 6, 2020: <http://gonggam.korea.kr/fcatalog/ecatalog5.jsp?Dir=1599&catimage=&callmode=admin>
- 곽중철. (2000). 『통역 10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곽중철. (2012). 『곽중철의 통역 강의록—학부에서 대학원까지』.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 권영설. (2020년 1월 17일). 새로운 생태계 경쟁력. 「한국경제」. Retrieved Jan 6, 2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4275151&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 방교영. (2003). 접속사 문의 문장구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7, 107-123.
- 이용성·이주은. (2016). 『통·번역 이야기』. 서울: 동인.
- 이주은. (2020).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한 자막 번역. 「통번역학연구」 24(2), 139-158.
- 정혜연. (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 - 통역교육에의 시사점 -. 「통번역학연구」 10(2), 105-126.
- 주진국. (2012). 문장구역 수행 방법론상의 특징에 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0(1), 211-227.
- 홍설영. (2012).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사례분석과 교육적 제언: 개방형 설문지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235-267.
- 楊承淑. (2007).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손지봉, 김영민 안희정 역. 서울: 한국문화사.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ong, Sul-young. (2010). “Paraphrasing as an Anti-interference Technique in Sight Translation: An Action Research-based Experiment”,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3(2), 141-170.
- Jones, Robert. (1998). *Confé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Lee, Sohhee. (2007). "The Use of Segmentation Strategy in Sight Translation - A Pilot Study -",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9(1), 153-172.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Riccardi, Alessandra. (1998). "Interpreting Strategies and Creativity". In Ann Beylard-Ozeroff, Jana Králová & Barbara Moser-Mercer (Eds.) *Translator's Strategies and Creativity: Selected Papers from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ague, September 1995*,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71-180.
- Seleskovitch, Danica and Marianne Lederer. (1989). *A Systematic Approach to Teaching Interpretation*, Luxemburg: Didier Erudition.
- Setton, Robin and Andrew Dawrant. (2016). *Conference Interpreting: A Complete Cours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 Study on Learner's Sight Translation Strategy for Improv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kills

Huh, Ji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sight translation strategies of learners of interpreting. Sight translation serves as a useful tool for practicing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t is particularly useful for developing strategies f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order to explore the diverse strategies employed by learners and understand the difficulties in conducting sight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arising from syntac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is study, conducted a sight translation experiment on 20 learners of interpreting.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10 learners with simultaneous interpreting skills and 10 learners with only consecutive interpreting skills. The result indicates that learners with simultaneous interpreting skills are more prone to transform meaning units in ST into sentences in TT; participants prefer to interpret segments containing verbs into sentences in TT; segments without verbs present difficulties in predicting the verb and formulating output in the target language.

>> Key Words

문장구역(Sight translation),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 학습자(Learners), 통역 교육(Interpreter training), 통역전략(Interpreting strategy).

허지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조교수

huhjiun@ewha.ac.kr

관심분야: 동시통역 전략, 통역수요, 통번역시장, 통번역경영

논문투고일 : 2020년 9월 1일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1일